

ARRIVAL UNEXPECTED DIALOGUE

방&리, 박윤경, 조애리 그룹전

일정: 2014.5.20(화) - 7.4(금)

장소: 갤러리 시몬(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6길 20)

문의: T. 549-3031, 720-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이미지 및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2014 arrival_그룹전)



갤러리 시몬에서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젊은 작가들의 그룹전인 <Arrival: Unexpected Dialogue>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신진작가 방&리(방자영&이윤준), 박윤경, 조애리가 참여하여, 설치, 미디어, 페인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옴니버스 형태의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Arrival: Unexpected Dialogue>는 새로운 작가의 도입과 도래(전시)라는 의미와 그의 연장선으로 여러 작가의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파생하는 '뜻밖의 즐거운 대화'를 통해 어떤 새로운 사건의 도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의 이번 전시의 제목이자 주제이다. 전시는 2014년 5월20일(화)부터 7월4일(금)까지 개최된다.

방&리는 방자영과 이윤준으로 구성된 작가그룹으로 뉴미디어, 디자인,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설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라이팅, 컴퓨터 영상, 광섬유 등의 다양한 매체, 설치로 이루어지는 방&리의 작업은 조형물 각각이 개별적 작업으로 독립되기도 하는 반면,

gallery **simon**

하나의 공간에 놓임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형 설치작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들의 작품은 칼스루헤 ZKM 미디어 아트센터(독일), 세비아 비엔날레(스페인), 백남준 아트센터(한국) 등에서 전시되었다.

작가 박윤경은 런던 골드 스미스 대학에서의 유학생살을 통해 '회화' 자체의 본질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여 이후 기존의 회화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해체하였다. 이를 통해 캔버스 천을 감싸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던 나무틀과 틀을 감싸는 천 자체의 특성이 핵심적으로 부각되었다. 불투명한 캔버스 천 대신에 얇고 투명한 천을 사용하여 화면 위에 그려진 이미지와 투명 천 안쪽의 공간을 반영하고 평면 위에 그려진 이미지 속에서 모든 것이 완결되는 구조가 아닌, 설치된 공간(벽)에 따라 변화하는 형식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화면 위를 부유하는 자유롭고 빠른 속도의 원과 곡선의 속도감 있는 필치, 높은 채도의 경쾌한 색채는 작가가 시도한 회화적 실험이 너무 심각하거나, 개념적이지 않은 유쾌함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작가 조애리는 런던의 스레이드 스쿨 오브 파인 아트에서 순수 미술학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도미, 컬럼비아 대학에서 미술교육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뉴욕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2012년 뉴욕시의 타임 스퀘어 협회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아트 이벤트인 <빅 스크린즈>에 당선되어 7월 한달 동안 매일 밤 40 여 개의 타임 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비디오 작업이 상영되었고 이를 통해 뉴욕에서 크게 주목 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도 그 연장 선상에 있는 자연을 소재로 한 비디오 작업을 선보인다.

국내외를 오가며 세계를 무대로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가 3인의 이번 전시를 통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탐미와 그에 따른 스펙터클한 작업으로의 전개가 앞으로 새로이 도래할 한국 현대미술의 교두보적 장이 되길 기대해 볼 만 하다.